

광주여대 양궁팀 전국대회 메달 행진

김민서, 60m 금·50m 은
이세현·김정운·최예진, 단체전 동
남녀일반부 개인전, 기보배 1위

광주여대 김민서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광주여대는 이세현, 김정운, 최예진이 팀을 이뤄 출전한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김민서는 지난 19일 예전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제패기념 제38회 회장기 전국 대학·실업 양궁대회 여자대학부 60m 경기에서 351점을 쏘 임두나(경희대)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김민서는 20일 열린 50m 경기에서는 339점을 기록하며 1위 임두나(계명대·340점)에 1점 뒤처 은메달을 추가했다.

70m, 60m, 50m, 30m 거리별 기록 합산(1373점)으로 개인전 예선을 2위로 통과한 김민서는 21일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지는 개인전, 김정훈(조선대)과 팀을 이룬 혼성전에 출전, 추가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광주여대는 여자대학부 단체전 8강에서 안동대를 세트 스코어 5-4로 꺾고 4강에 진출했으나 경희대에게 2-6으로 패했다. 광주여대는 도쿄올림픽 태극마크인 에이스 안산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광주여대 양궁팀. 왼쪽부터 김정은 감독, 이세현, 김정운, 최예진.

〈광주여대 양궁팀 제공〉

남자대학부에서는 조선대 김정훈과 이진용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정훈은 50m 경기에서 346점의 기록으로 1위를, 이진용은 341점의 기록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 18일 열린 남녀일반부 개인전에서는 기보배(광주시청)와 이승운(광주 남구청)이 각각 1, 3위를 차지했다.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기보배는 여자일반부 개인

전 결승에서 정다소미(현대백화점)를 세트스코어 6-2로 제압하며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90m와 50m에서 금메달, 3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승운은 개인전 4강에서 김현중(국군체육부대)에게 세트스코어 4-6으로 패해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기보배와 이승운은 팀을 이뤄 출전한 시도대항 혼성단체전에서는 은메달을 합작했다. 기보배와

이승운은 결승에서 제주(민병영, 유수정)를 만나 1세트 39대38, 2세트 36대38, 3세트 40대39, 4세트 36대37, 동점을 기록 한 후 쏏오프에 들어가 나란히 '10, 10'을 쏘으나 '엑스텐·10'을 쏜 제주에 아쉽게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남구청 이승운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도쿄 하늘에 태극기 휘날린다

13종목서 금 7·은11·동14 목표, 5회 연속 올림픽 '톱10' 기대
양궁 광주여대 안산·근대 5종 광주시청 전용태 금메달 기대주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에서 2004년 아테네 대회부터 4회 연속 종합순위 10위 안에 들며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세계 톱10' 한자리를 꿰차는 것이 목표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가 전체 33개 정식 종목 중 13개 종목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할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나라는 도쿄에서도 양궁, 태권도, 사격, 펜싱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에서 남보를 기대한다.

체육회는 특히 양궁,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 이상씩은 예상한다.

양궁에는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은 물론 도쿄 대회에서 새로 추가된 혼성단체전까지 다섯 개의 금

메달이 걸려 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전 종목 금메달 후보다. 7월 24일 열리는 혼성단체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회 첫 금메달이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달 25일 치르는 여자 단체전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지난 리우 대회까지 한국이 8회 연속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종목이다. 여자양궁 세계랭킹 1위 강재영이 장민희, 안산과 왕좌 지키기에 나선다.

2016년 리우 대회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우진과 2012년 런던 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오진혁에 '고교 공사' 김재택이 가세한 남자대표팀은 7월 26일 단체전에서 금빛 과녁을 정조준한다.

남녀 4체급씩에 총 8개의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태권도도 초반 레이스에 큰 영향을 줄 종목이다.

역대 최다인 6명이 출전권을 획득한 도쿄 대회에서도 누구 하나 금메달 후보로 손색없지만 일단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목표로 세웠다.

7월 24일 양궁 혼성단체전에서 금빛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날 태권도 남자 58kg급에 출전하는 장준이나 여자 49kg급에 나서는 심재영이 첫 금메달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7월 25일에는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는 남자 68kg급 이대훈이 금메달 한풀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개의 금메달이 걸린 펜싱 역시 금메달 기대 종목이다. 남자 사브르 세계랭킹 1위 오상욱이 출전하는 개인전 역시 개막식 다음 날인 7월 24일 열려 이날이 우리 선수단에는 '골든 데이'가 될 수도 있다.

사격 종목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이룬 진중오는 도쿄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한다. 다만, 진중오는 주 종목인 50m 공기권총이 폐지돼 2012년 런던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10m 공기권총과 함께 신설 종목인 10m 공기 권총 혼성 단체전에 나선다.



양궁 광주여대 안산

세계를 호령하는 여자 골프는 대회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자축구도 2012년 런던 대회 동메달을 뛰어넘는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을 바라본다. 유도에서는 리우 대회 은메달리스트인 남자 66kg급 안바울이 금메달에 재도전한다.

한국 근대5종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안길 것으로 기대하는 전용태 등도 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리안 좀비’ 정찬성, 댄 이계에 UFC 첫 판정승

페더급 챔피언 재도전

‘코리안 좀비’ 정찬성(34·사진)이 댄 이계(30·미국)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UFC 페더급 타이틀 재도전을 향해 다시 속도를 냈다.

정찬성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UFC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온 ESPN 25’ 메인이벤트에서 이계를 5라운드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꺾었다.

정찬성이 KO나 서브미션이 아닌 판정승을 거둔 것은 2011년 UFC 입성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거침없는 타격전이 특징인 정찬성은 이계를

맞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다.

테이크다운 시도를 5번 해서 3차례 성공하고, 서브미션을 3차례 시도하는 등 승부를 그라운드 싸움으로 끌고 간 끝에 승리를 따냈다. 3명의 부심 가운데 2명은 49-46으로 정찬성의 압도적인 우세를 인정했고, 1명만 48-47 박빙 우세로 판정했다.

지난해 10월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5라운드 심판전원일치 판정패를 당하며 타이틀 도전에서 멀어지는 듯했던 정찬성은 이계를 확실하게 제압하면서 페더급 챔피언에 다시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승리로 정찬성의 통산 성적은 17승 6패가 됐다.

정찬성은 UFC 페더급 랭킹 4위로 이계(8위)보다 랭킹이 4계단이나 높다. 인지도에선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났다.

그런 이계에게 패배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정찬성은 그래서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히 실리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다. 정찬성은 1라운드 중반 기습적인 테이크 다운으로 기선을 제압했고, 2라운드에는 효과적인 레그킥으로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갔다. 3~4라운드 그라운드 싸움에서 이계를 압도한 정찬성은 5라운드 1분여를 남기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시간을 끌면서 별다른 위기 없이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타’ 나달·팀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대기6번’ 권순우 도쿄행 가능성

남자 테니스 강자들이 잇따라 2020 도쿄 올림픽출전을 포기하고 있다.

남자 단식 세계 랭킹 4위 도미니크 팀(오스트리아)은 18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다.



라파엘 나달

팀은 "나라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지만, 올해 내가 원하는 테니스를 펼치지 못해 도쿄 올림픽에 출전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팀은 도쿄 올림픽에 앞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인 윌버던에는 출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US오픈 우승자인 팀은 남자 테니스 '빅3'로 꼽히는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의 수준에 근접한 '차세대 주자' 중 하나다.

남자 랭킹 10위권 선수가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건 팀이 벌써 3번째다.

전날에는 나달이 도쿄 올림픽 불참하겠다고 밝혔고, 15일에는 10위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트(스페인)이 올림픽 기간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선언했다.

10위권 밖에도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스타급 선수가 적잖다.

US오픈 8강에 2차례, 윌버던 준결승에 1차례 오른 33위 존 이스너(미국)와 호주오픈과 윌버던에서 한 차례씩 8강에 오른 58위 닉 키리코스(호주)도 올림픽 불참을 확정했다.

한편, 상위 랭커들이 잇따라 포기를 선언하면서 79위인 권순우(당진시청)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 올림픽 남자 단식에는 국가 대표전인 데이비스컵 규정 출전 횟수를 채운 선수 중 한 나라당 4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계 랭킹 상위 56명이 자격으로 출전한다.

대한테니스협회에 따르면 권순우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올림픽 출전 대기 순번에서 6번째였다.

권순우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선수 참가 여부를 각 테니스협회로부터 통보받는 22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 체육회장에 정희환 대표 선출

정희환 리치씨엔스(주) 대표가 광주시 북구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시 북구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북구체육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정 후보자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정 당선자는 광주시 축구협회 부회장, 북구체육회 감사 및 스포츠공정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체육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운동하도록 체육시설 인프라